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74. 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2014. 06. 01.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4: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하셨지요.(예)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하는 그대로 깨닫고 올바르게 경배하라는 기별이라고 하셨지요.(예, 그렇습니다.) 혹시 더 부가해서 하실 말씀이 없지요? 그렇다면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답: 예, 말씀하시니 아주 중요한 사실을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생각이 나는군요.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의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성경과 많이 다른 각도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을 알기 위하여서는 성경이 계시하는 죄의 실상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실상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의 죄의 실상을 도덕적 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죄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죄는 도덕 이전의 사실입니다.(그건 또 무슨 말씀인지요?) 성경에는 십계명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십계명 후반부의 이 도덕적 원리는 대부분의 고등종교들이나 사회 도덕가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활에 실천해야 할 도덕계율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회정의이기도 합니다. 이 계율을 범한다고 교회에서 범죄자로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와 국가의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일반적 도덕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피조물이기를 거부할 때 창조주와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창조된 상태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께서는 그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창조한 그 존재를 회수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자기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니, 창조주께서는 창조한 그 피조물의 존재를 회수하는 것이 아주

정당하지요. 목사님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까?(아닙니다. 아주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피조물의 존재를 회수하면 피조물은 창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로 환원되지요. 그것이 사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전반부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관계에서 성립되는 죄입니다. 결과는 피조물이 존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피조물이기를 거부하도록 가르치고 부추겨서 존재를 상실하게 하는 가르침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2. 그 말씀은 도덕적으로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고 창조주와 관계를 단절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시조 아담이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선언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아담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곧 창조주께서 그가 창조한 그 사실을 거두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조물은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고 창조되지 아니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흠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사람을 흠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가리라고 한 것은 창조되기 전의 상태, 즉 창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의 아내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전달할 생명의 씨를 아담에게 주시고 여자는 그 씨를 받아서 기르는 역할, 곧 돕는 배필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생명의 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피조물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서 생명의 씨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통하여 태어나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사산아들이라는 말입니다.

3. 목사님, 그 말씀은 좀 이상하네요? 아담의 후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없다니 무슨 말씀인지요?

답: 감사합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지금 인생은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 기간을 수명이라고 합니다. 수명이라는 말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만일 창조주께서 자발적이 아니고 유혹에 넘어가서 피조물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로 하지 않았으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스스로 피조물이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으로 그렇게 된 것을 십분 생각하시고 그들을 다시 재창조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창조주께서 친히 여자의 씨로 세상에 사람 되어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거시고 생명이 승리한 것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기간, 즉 수명이 있는 동안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합니다. 이제는 유혹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생명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 즉 존재를 상실한 상태로 있기로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가장 기본적인 그 죄에 머물러 있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때 피조물이기를 거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영원히 그의 존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을 영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며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이 계시하는 죄의 문제가 도덕적 죄 이전의 상태에 대한 것인 줄 확실히 알겠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라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도덕론적으로 죄를 가르치고 도덕적인 구원이 아니라 생명론, 창조론 존재론으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의 핵심입니다.

5.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확실히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답: 감사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계14:8에 기록되어 있지요. 먼저 읽어봅시다.

[계14: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미 말한 것처럼 둘째 천사의 음성에 대하여 큰 음성으로 말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첫째 천사의 뒤를 따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선언은 그리 유쾌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냥 알리는 것일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선포는 분명하니까 큰 음성으로 말했느냐 아니냐하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엇이며 왜 바벨론이 무너졌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6. 그렇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답: 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다가 여기서 갑

자기 바벨론에 대하여 말하면서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폴리스”인 데요, 도시라는 말입니다. 성채(城砦)를 뜻하는 캐슬(castle)이 아닙니다. 도시입니다. 바벨론은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무역을 잘하고 상업이 번성하는 도시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은 17장과 18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바벨론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으니 17장과 18장의 내용을 미리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7.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17장을 읽어봐야 하겠군요?

답: 그렇게 합시다. 17장 공부할 때 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큰 성 바벨론을 알기 위하여 17장을 봅시다. 17:1~5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17:1~5]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2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4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바벨론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서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취하게 하는 음녀, 창녀를 뜻하는 말입니다. 전에 계시록에 세 여자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여자가 2장에 두아디아교회 시대에 있는 자칭선지자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이제 읽은 17장의 창녀입니다. 이미 아는 대로 예언적 상징으로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거짓선지자적인 교회이고 창녀는 세상의 정치권력과 야합한 교회입니다. 이제 17장의 이 창녀는 교회인데 왜 창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2절에서 설명하는데, 왕들과 음행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이용하고 함께 정치적 권력을 구사하게 되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는데 곧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치와 종교적 권리를 행사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바벨론은 큰 도시인데 18장에는 이 도시가 무역하고 상업이 번성한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 즉 이 음녀로 상징된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17장에 음녀가 꾸민 장신구를 자세히 기록한 것도 부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야기한 김에 18장도 조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계18:2,3]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말씀에서 바벨론이 땅의 왕들과 행음했다고 했는데 17:2과 같은 내용이지요. 땅의 상고 즉

장사꾼들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구절 더 읽지요.

[계18:11~17]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 이라 12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13 계 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14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5 바벨론 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6 가 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 민 것인데 17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구절에는 바벨론이 무역한 상품들의 물목이 기록되어 있고 부요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꾸미고 있는 모습은 17장의 음녀의 치장과 같고 왕들과 음행했다는 것도 17:2의 기록과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17장을 연구하는 시간에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요, 오늘은 큰 도시 바벨론이 결국 창녀로 표상된 교회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14:8의 다른 말들을 살피기로 합시다.

8. 예, 지금 읽은 성경구절만으로도 바벨론의 정체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행으로 인 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고 한 것은 18:3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바벨론의 실상을 잘 기록한 것이 18장이라는 말입니다. 음행이 무엇인지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치권력을 아울러서 정치와 교회가 야합하고 교회가 정치적 권력 을 행사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강제로 주입시키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정치적 권력 으로 형벌을 가하는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4:4을 봅시다.

[약4: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교회가 세상과 벗이 되고 성경이 계시한 그대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속적 부귀와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탐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 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도시로 상징되고 창녀로 상징된 집단이 교회인데 세상의 정치 적 권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했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진리 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 입시키는 것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성 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18,19을 볼까요.

[롬1:18,19]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 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차로 창조로 나타내신 것을 뜻합니다. 19절 20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도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실천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교회가 그것을 왜곡하고 오류를 진리인양 가르치고 따르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 창녀로 상징되고, 큰 도시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 조직이 바로 그런 조직이라는 것을 17장과 18장이 가르쳐주는데, 18장에는 무너지는 상태를 상세히 기록했고,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첫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9. 첫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뜻합니까?

답: 아, 예, 하나님께서는 144000인에게 전파하도록 하시고, 또 그들의 전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기별이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창조주로 경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1~4계명을 올바르게 준행하는 것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장본인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무너지는 바벨론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조용한 권고와 경고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직도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덕론적 신앙으로 도덕적 선을 지향하고 악을 멀리하며 사람이 수양하고 고행하고 의와 선을 도야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행복한 영생을 얻어서 비록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서 행복한 중에 영생을 하고 악을 행한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무한한 고통 중에 영생한다고 가르치는 권선징악의 도덕적 교리와 신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른 경배라고 외쳤을 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중적으로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일원적으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확실한 답을 얻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원적으로 창조했습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 창조해서 창조된 몸속에 창조한 영혼을 밀어 넣은 것이 아닙니다. 흠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 곧 살게 하는 기운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기운을 불어넣기 전에는 사람은 그냥 흠으로 만들어놓은 인격도 의식도 없는 물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인격체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생명, 한 인격, 한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한 거짓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진리인양 받아들여서 사람은 몸과 영혼의 이중 구조를 가진 존재라고 믿고 몸은 죽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영혼불멸설을 교리와 신조로 하여 사람은 불멸의 존재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영원지옥설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 사람이나 악하게 산 사람이 다 영원불멸한다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함을 사후 영혼의 세계에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멋

대로 살며 온갖 쾌락을 맛보고 갖은 악을 저질러서 악한 욕망을 마음껏 행사했지만 짧은 인생 살이에서 행한 그런 행악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지옥이라는 환경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론인데 실상은 루시퍼가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루시퍼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 것으로서 이교 사상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교회가 뱀을 통하여 전해진 이 거짓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 없지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는 표로 주신 제7일 안식일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그날 하나님의 집에 모여 경배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창조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 두목은 사람들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10.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심판에서 바벨론이라고 판결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그런 교리와 신조에서 속히 나와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바르게 확립하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라. 결국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반응에 따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립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11.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는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확실히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신앙으로 심판에서 옳다는 판결을 받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